

# 아이돌보미 광주시·전남도 상대 임금 소송

광주 189명 5억7천만원·전남 52명 1억5천만원 청구

## “근로자 인정, 지자체 연대채무 의무” 주장... 전국서 유사 소송

광주지역 아이돌보미 189명이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봐주는 것을 말하며, 각 지역의 아이돌보미센터에서 돌보미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보미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지역 아이돌보미 52명도 1억5000만원대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국에

서 유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아이돌보미 189명이 아이돌보미센터와 광주시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5억7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우선 1인당 3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골프장 캐디와 학원강사 등의 유사 소송이 진행됐지만 아이돌보미의 집

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해야 하는지, 이에 따른 수당 등을 각 지자체가 지급해야 하는지’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이돌보미 센터의 채용공고를 통해 자격 취득과 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하고 있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지자체는 아이돌보미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있다”면서 “아이돌보미 센터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을 노동자인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연대채무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무 형태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등으로 미뤄 아이돌보미는 여전한 노동자이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사용자인 아이돌보미센터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추후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학원강사들이 임금청구소송에서 “강사들은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밀렸던 퇴직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2억149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나주혁신산단 305억 투자협약

차부품 생산업체 등 3곳...190명 일자리 창출

나주혁신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등 3곳이 입주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10일 나주시청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지엠티코리아, ㈜일레본전자, ㈜우만하이시스템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나주혁신산단에 총 305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190여명의 새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지엠티코리아는 광주 평동산단 공장을 나주로 확장 이전한다. 나주혁신산단 8023㎡ 부지에 120억 원을 투자해 2020년 말까지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충북 음성에서 반도체용 점착테이프를 제조하는 ㈜일레본전자는 나주혁신산단 8223㎡ 부지에 105억원을 투자해

2020년 말까지 반도체용 점착테이프와 모바일 액정보호 필름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서울에 본사를 둔 철강제품 도소매 기업인 ㈜우만하이시스템은 나주혁신산단 9437㎡ 부지에 80억원을 투자해 2020년 말까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나주혁신산단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체 분양 대상 120만 3740㎡ 가운데 79만 941㎡가 분양돼 6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조재운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기업하기 좋은 혁신산단에 투자해준 기업들에게 11만 나주시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며 “투자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김종갑 한전 사장 선출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에 김종갑(사진) 전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선출됐다. 신임 사장이 선출되면서 4개월간 ‘수장 공백’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던 인사와 주요업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 전 대표이사를 제20대 사장으로 선출했다.

사장으로 선출된 김 전 대표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임기 3년의 한전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경북 안동 출신인 김 전 대표이사는 대구 상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5년 행정고시에 상공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이후 산업자원부 차관보, 특허청장, 산업자원부 제1차관,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사장,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회장 등을 지냈다.

산자부 차관이라는 행정경험과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라는 경영 현장경험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에서 한전 안팎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북미 정상회담 탄력 “비핵화 해결 기대”

트럼프 “5월·6월초 김정은과 만날 것” 시기·실무진 사전 접촉 이례적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개최 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접촉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북미 간 사전 접촉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임명 등 안보라인 물갈이에 따른 회담 불발 가능성을 불식함으로써 회담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일정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접촉을 통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의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한 이후 북미는 양측의 비밀 정보라인을 가동해 사전 회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것 기대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북한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양측간에 큰 존경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양국) 관계가 아주 오래전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 패파’로 불리는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못 박았다. /연합뉴스

랬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달라지길 바란다”며 양국 관계 개선도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것은 다른 대통령들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만약 우리가 5년, 10년, 20년 전에 했더라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이전에 협상이 이뤄졌더라면 타결이 한층 용이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회담을 마련했고, 이는 전 세계를 매우 흥미롭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0일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전망대에서 열린 전라도 천년 가로수 길 조성 기념식에서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성 장흥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비 제막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전라도 천년 가로수 길 조성 기념식 열려

영광~광양 522km

전남도는 10일 장흥 정남진 전망대 일원에서 전라도 천년 가로수 길 조성 기념식을 했다.

전남도는 전라도 정도(道) 1천년이 되는 2018년을 맞아 광주시, 전북도와 함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도 천년 가로수 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해안선을 가진 지역 특성을 살려 지난해부터 10년 계획으로 조성된다. 영광에서 광양까지 16개 시·군 해안

도로 522km를 따라 가로수 길, 소공원, 마을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천년 가로수 길에 해안가 휴양시설 58개소, 해양축제 26개와 연계하고, 시·군별 기후·지형·경관을 고려한 가로수를 심기로 했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광주시·전북도와 손잡고 추진하는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을 통해 전라도가 화합·상생·도약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00년 향한 호남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혈당조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식후 2배속삭~ 하루 2번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소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성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